

당원 불법 모집 파문...이석형 복당 변수 되나

국회 열자마자 '개점휴업'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 일관... 의사일정 합의 못해

민주 광주 광산 갑·을 지역구서만 1000여명 모집

민주당, 전국 첫 사례 진상규명 착수...최종 인준 '불투명'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 갑·을 지역구에서 무려 1000 명이 넘는 온라인 권리당원이 불법적으로 모집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 권리당원 불법 모집 사례가 확인된 것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중앙당은 즉각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당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허위 주소 등록, 휴대전화 통신사 허위 가입, 당비 대납 등의 부작용 지적(광주일보 5월22일자 4면)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에 불법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업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중앙당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당원들의 주소가 임의로 변경돼 광산 지역구 권리당원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등록된 사례 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고받은 중앙당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불법 모집 권리당원 모집에 전국적인 경증을 올린다는 방침 아래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의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설피게 대응했다가는 파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모집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 내년 총선 입지자들의 활동을 일찍 제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불법 모집 권리당원 모집은 정당 업무방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진상조사 이후,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이번 불법 모집 권리당원 모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경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산 갑·을 지역의 불법 모집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 파문이 내년 총선에서 광산 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노리는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의 민주당 복당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가 지난 19일 이 회장의 복당을 허용했지만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인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4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최고위원들이 이 회장의 잘못을 타당 경력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고, 불법 모집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 파문이 이 회장을 비켜갈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복당 인준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호남 민심의 눈높이"라며 "이 회장의 복당 문제를 잘 못 처리하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어 최고위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광주 광산갑지역위원회 당원 등이 "이 회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현웅 합평 군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 찾아가 선거를 지원한 모습"이라며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한 사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 등이 다루질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날 중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해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

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일하는 국회" 전략을 내세워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헌을 막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헌적인 상임위의 경우 위헌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동문서답' 황교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논란 일자 '최저임금 바로잡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임금'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발언에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주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사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 앞 못'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

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며 "저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번 탈당·타당 후보 지지...민주당과 맞선 이석형 복당 안돼"

당원심사위 반대 사유서 접수...선거운동 사진·녹취록 담겨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당과 무소속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3차례 탈당하고,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신분으로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 뒤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민주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석형 복당 반대 사유서'가 제출돼 진상을 확인 중

이다"고 밝혔다. 이 사유서는 이 회장의 복당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자 민주당 중앙당이 광산구갑 지역위원회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만들어졌다.

특히 민주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광산구갑 지역위원장, 고문, 대의원, 상무위원, 운영위원, 부위원장단, 당원협의회장단, 당원 등의 명의로 제출된 이 자료에는 이 회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관련 녹취록이 함께 담겨 있다.

이들은 이 사유서를 통해 "이 회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반대하고, 민주평화당 이윤형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상 '산림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 회장의 측근인 산림조합 한 관계자가 당시 평화당 이윤형 후보의 선거활동을 도왔다"면서 "이윤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보도한 합평 지역 신문의 기사에는 당시 선거 운동 현장에서 이윤형 후보와 이석형 회장이 한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 회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 당선됐던 정현웅 후보의 선거캠프에도 찾아가 선거운동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 당시, 합평군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7석 중 6석은 민주당이 차지했고 유일하게 무소속 정현웅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석형 회장이 복당해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은 불리한 입지를 세팅해 권력을 얻고자 하는 남도한 합평 지역 신문의 기사에는 당시 선거 운동 현장에서 이윤형 후보와 이석형 회장이 한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개특위 연장...선거구 확정 작업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해 정개특위 연장은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열 것은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52일 만에 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및 국회의

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는 간사인 장재원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덕암리 청정바닷가 접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함평 순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도로접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즙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카페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면삼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윤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집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정안벽 펜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국 입야

▶ 바로 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윤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